

【 주간 이슈 】

유럽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시장평가와 시사점

장동식 수석연구원, 이정환 선임연구원

- 유럽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7월말에 공표한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유럽의 위기상황분석은 시장으로부터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위기상황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추가하여 실시됨.
 - 이 분석은 유럽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위기상황분석의 엄격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되는 상황임.
 -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험성이 저평가되었다는 논란이 있음.
 - 또한 유럽은행감독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강제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위험요인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분석의 투명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음.
- 유럽의 경우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엄격성과 투명성측면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향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장참여자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분석의 엄격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분석방법, 분석결과, 자본확충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여 시장 불안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발표 시기 및 발표 내용의 조절을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필요함.

1. 검토배경

-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 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분석(stress test)을 실시함.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구제하기 위해 1,100억 유로를 투입하고, 5,000억 유로의 구제금융기금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말까지 국채 금리의 상승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됨.
 - 유럽 정상들은 남유럽의 재정위기 등을 반영한 위기상황분석이 은행권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 미국 정부와 IMF¹⁾는 시장참여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방법, 결과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2009년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공개 이후 미국 금융시장 내에 존재했던 우려가 빠르게 해소된 것을 볼 때 유럽의 혼란스러운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긴축과 아울러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 및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함.

- 유럽은행감독위원회는 2010년 7월말에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위기상황분석의 세부 내용을 공개함.
 - 2010년 6월말 유럽 정상들은 위기상황분석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로 결정함.
 - 독일은 위기상황분석의 공개에 대해 반대하던 의사를 철회하였고, 스페인은 적극적으로 공개 의사를 표명함.
 - 유럽은행감독위원회 및 유럽 각국 은행감독당국 등은 2010년 7월말에 위기상황분석의 방법, 결과 등을 공개함²⁾.

- 유럽 은행권의 위기상황분석은 시장참여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함께 받고 있는 가운데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활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1) IM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IMF Mission on Euro-Area Policies, 2010.6

2) Committee of European Banking Supervisors, "Aggregate outcome of 2010 EU wide stress test exercise coordinated by CEBS in cooperation with ECB," 2010.7.23.

- 유럽 은행권의 위기상황분석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IMF와 일부 시장분석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반면, 유럽의 자본시장은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시장으로부터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것으로 파악됨.
- 본고에서는 유럽의 위기상황분석이 지닌 특징을 미국의 위기상황분석과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위기상황분석 실시 및 공개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유럽 은행권 위기상황분석의 주요 특징

가. 성격 및 목적

- 2010년 유럽 은행권의 위기상황분석은 금융기관의 잠재적 취약성 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금융시스템 분석의 성격을 지님.
 - 유럽은 금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정성을 측정하는 동시에 자료 수집·정보교환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시스템이 지닌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함.
- 금번 유럽의 위기상황분석은 유럽국가 국채보유 손실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유럽은행감독위원회는 종합적인 충격흡수 능력을 평가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최근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함.
 - 유럽은행감독위원회는 각국 간 의견조율을 담당하였고 유럽중앙은행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반영한 국채보유 평가손실률, 지급불능 확률 및 손실규모 등의 시나리오를 설정함.

나. 적용 시나리오

- 유럽의 위기상황분석은 GDP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 등의 거시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장단기금리, 환율에 대해 '기준시나리오(benchmark)' 및 '악화시나리오(adverse)'를 설정함.

<표 1> 2010년 유럽 은행권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구분	기준시나리오		악화시나리오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GDP	0.7%	1.5%	-0.2%	-0.6%
실업률	10.7%	10.9%	10.8%	11.5%
단기금리	1.2%	2.1%	2.1%	3.3%
장기금리	3.5%	3.8%	4.4%	5.3%
환율(\$)	0.7%	0.7%	0.7%	0.7%
소비자물가	1.1%	1.5%	1.1%	1.1%

주: 상기 주요지표별 시나리오는 유로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임.

자료: CEBS, "Aggregate outcome of 2010 EU wide stress test exercise coordinated by CEBS in cooperation with the ECB," 2010.7.23.

- 위기상황분석의 시나리오는 유동성 부족, 금리상승, 외환시장 변동성증대, 주식시장 악화, 헤지펀드 손실 확대, 국제유가 상승, 신용스프레드 증대 등의 충격을 설정함.
 - 즉, GDP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 등 거시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장단기금리, 환율을 시나리오에 반영함.
 - 시나리오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준시나리오'와 잠재된 불확실성이 표면화되어 경기상황이 급속하게 악화되는 '악화시나리오'를 설정함.
 - 2011년 악화시나리오의 경우 GDP성장률은 EU집행위원회의 예측치보다 3%p 낮으며 실업률은 11%를 넘어서고 장단기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설정된 반면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으며 소비자물가는 1.1%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됨.
- 또한 유럽은 '악화시나리오'에 유럽국가 국채손실평가율(Haircut)을 추가한 '악화시나리오(2)'도 함께 설정함.
- 유럽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를 반영한 '악화시나리오(2)'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국채손실을 '악화시나리오'에 추가한 시나리오임.
 - 그러나, 악화시나리오(2)의 국채손실평가율은 국가의 지급불능은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의 엄격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를 제공함³⁾.

3) 유럽중앙은행은 유럽금융안정기금이 충분히 활용될 경우 EU국가의 부도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함.

<표 2> 국제손실평가율(Haircut) (2011년, 5년 만기 국채 기준)

구분	기준시나리오	악화시나리오	악화시나리오(2)
그리스	4.3%	6.4%	23.1%
아일랜드	4.2%	7.1%	12.8%
포르투갈	3.7%	6.1%	14.1%
스페인	4.1%	6.5%	12.0%
EU 평균	3.3%	-	8.5%

자료: CEBS, "Aggregate outcome of 2010 EU wide stress test exercise coordinated by CEBS in cooperation with the ECB," 2010.7.23

□ 유럽의 시나리오는 목적, 환경요인 등에서 미국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유럽은 종합적인 충격흡수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09년의 미국은 대형은행들의 신용리스크 충격흡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미국은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유동성측면에서 부실이 커져도 정부 지원 없이 버틸 수 있는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여 대형은행들의 자본적정성 관련 우려 해소하고자 함.
- 유럽은 유럽 개별 국가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나, 미국은 주별 환경보다는 연방 전체의 환경을 고려하는 차이를 보임.

다. 평가대상 선정 및 자본확충 요구액 산출 기준

□ 유럽의 위기상황분석은 유럽 전체 은행 자산의 65%에 해당하는 91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비율 6%를 자본확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설정함.

- 유럽 각국 은행들을 자산규모 기준으로 서열을 매긴 후 상위 50%를 평가대상에 포함함.
 - 선정된 은행들의 자산은 EU 전체 은행 자산의 65% 수준임.
- 유럽의 위기상황분석에서 설정한 자본확충 기준은 기본자본(Tier 1 capital)비율이 6%이며, 이는 유럽 은행의 최소요구자본 비율과 비교하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측면이 있음⁴⁾.

4) 기본자본 비율 6%는 위기상황분석을 위한 기준일 뿐이며, EU의 자본요구지침(CRD: Capital Requirement Directive)은 4%를

- 다만, 핵심기본자본(Tier 1 core capital) 또는 보통주 기본자본(Tier1 common capital)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엄격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됨⁵⁾.

□ 유럽의 위기상황분석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가대상 선정 및 자본확충 요구액 산출 기준은 2009년에 실시한 미국의 위기상황분석과 동일함.

- 유럽 위기상황분석은 미국처럼 자산기준으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평가대상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규모 역시 은행부문 자산규모에 비해서도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19개 대형은행을 평가대상으로, 유럽은 국가별 은행 자산규모 기준으로 서열을 매긴 후 상위 50%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대상으로 선정함
 - 미국의 경우 선정된 평가대상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미국 전체 은행권 자산의 2/3(약 66%)을 상회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는 유럽 전체 은행 자산의 65%수준임.
- 또한 유럽과 미국은 모두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 대비 기본자본비율 6%를 평가조건으로 설정함.
- 다만 유럽은 미국과 달리 보통주 기본자본 비율을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자본의 양과 더불어 질적인 구성면에서는 분석이 이루어지 않음.

라. 위기상황분석 결과

□ 유럽은 경기악화와 더불어 유럽국가 국채보유로 인한 손실을 가정하는 경우 7개 은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3,531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91개 은행의 평균 기본자본 비율은 2009년 10.3%(기준시나리오 적용)에서 2011년 말 9.2%(악화시나리오(2) 적용)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자본확충의 기준이되는 6%를 상회함으로써 은행권 전체는 충격흡수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기본자본비율 하락은 주로 경기악화로 인한 4,730억 유로의 자산가치 하락, 유럽국가 국채보유로 인한 670억 유로의 손실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요구하고 있음.

5) 기본자본 비율은 기본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보통주 기본자본 비율은 기본자본 중 우선주 등을 제외한 보통주만을 포함시킨 수치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함. 그리고 핵심자본 비율은 기본자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차감한 수치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함.

- 평가대상 은행 중 ‘악화시나리오(2)’ 기준으로 기본자본비율 6%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7개인 것으로 나타남.
 -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들은 총 3,531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표 3> 유럽 자본확충 대상 은행의 기본자본 비율 및 자본요구액(2011년 기준)

은행명	기준 시나리오	악화 시나리오	악화 시나리오(2)	
			자본요구액 (백만유로)	
Hype Real Estate Holding AG(독일)	7.8%	5.3%	4.7%	1,245
Agricultural Bank(그리스)	10.7%	8.9%	4.4%	243
Caixa Destalvis de Catalunya(스페인)	10.7%	8.9%	4.4%	1,032
Caja Duero(스페인)	6.4%	4.5%	3.9%	127
Banca Civica(스페인)	7.6%	5.2%	4.7%	406
Caixa Destalvis de Sabadel(스페인)	6.6%	5.1%	4.5%	270
Cajasur(스페인)	6.6%	4.9%	4.3%	208
7개사 전체	7.6%	5.4%	4.4%	3,531

주: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 대비 기본자본(Tier 1) 비율임.

자료: CEBS, "Aggregate outcome of 2010 EU wide stress test exercise coordinated by CEBS in cooperation with the ECB," 2010.7.23

3. 유럽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시장평가

가. 위기상황분석의 엄격성

□ 2011년 GDP성장률 시나리오가 EU집행위원회의 예측치보다 3%p 낮게 설정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됨.

○ GDP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악화시나리오는 2010년 현재 유로지역에 나타나는 경기 회복세 지연, 실업률 상승세, 저물가의 기초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짐.

□ 그러나 기본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이 미국보다 현저히 적은 것은 위기 상황분석을 엄격하게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유럽의 위기상황분석은 평가대상기관의 8%가 기본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국은 평가대상 기관의 53%가 기본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함.
- 이러한 차이는 위기상황분석의 엄격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아일랜드의 Allied Irish Banks(6.5%), 이탈리아의 Monte dei Paschi(6.2%), 독일의 Landesbanken(6.2%) 등과 같이 7% 미만이 은행들에게 보다 엄격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이들 은행들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또한 남유럽 국가발행 국채에 대한 제한적 평가와 기본자본만을 적용한 자본적정성 평가는 위기상황을 엄격하게 설정하지 않았다는 논쟁의 여지를 제공함.

<표 4> 만기보유 국채를 포함할 경우 탈락 은행의 기본자본 비율(2011년 기준)

은행명	기본자본 비율	자본 요구액 (백만유로)	은행명	기본자본 비율	자본 요구액 (백만유로)
Landesbank Baden(독일)	6.0%	67	Pastor(스페인)	4.8%	224
Ibercaja(스페인)	5.9%	29	Hype Real Estate(독일)	4.7%	1,199
Bank of Cyprus(사이프러스)	5.8%	46	NordLB(독일)	4.5%	1,588
EFG Eurobank(그리스)	5.7%	170	Cajasur(스페인)	4.2%	225
MPS(이탈리아)	5.6%	516	Banca Civica(스페인)	3.8%	674
AIB(아일랜드)	5.5%	343	Unnim(스페인)	3.7%	415
Guipuzcoano(스페인)	5.4%	44	Espiga(스페인)	3.7%	674
Caja Sol(스페인)	5.4%	133	Diada(스페인)	3.1%	1,407
Caja3(스페인)	5.3%	105	NBG(그리스)	2.8%	2,248
Jupiter(스페인)	5.2%	1,685	Piraeus(그리스)	2.7%	1,215
Colonya(스페인)	5.0%	2	Hellenic Postbank(그리스)	-0.6%	458
Mrfin(사이프러스)	4.8%	277	Agricultural Bank(그리스)	-3.8%	1,453

자료: Citigroup

- 2010년 5월초 그리스, 스페인의 국채손실평가율이 이미 17%와 3%대에 도달한 상황에서 2011년 순수 손실평가율을 각각 16.8%와 5.5%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룸.
- 국채손실평가를 계상함에 있어서 은행 내 투자계정(Trading Book)에 대해서만 손실을 평가하고, 나아가 그리스의 국가부도위험을 가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나리오의 엄격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위기상황분석을 순수 손실평가율을 상향조정하거나 만기보유 유가증권계 정상의 국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면 일부 은행은 기본자기자본 비율 기준인 6% 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음.
 - Citigroup의 분석에 따르면, 24개 은행이 만기보유증권계정의 국채보유도 손 실평가율에 포함시키면 평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일부 시장분석가들은 미국처럼 핵심기본자본(Tier 1 core capital)과 기본 자본을 병행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테스트의 엄격성을 저하시 킨 것이라고 지적함⁶⁾.

나. 위기상황분석의 투명성

- 유럽은 유럽국가 국채보유를 포함한 은행의 세부정보 공개원칙을 밝혔으나 일부 은행들은 위기상황분석 발표 초기에 국채보유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투명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
 - 유럽은 원칙적으로 세부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를 강제하지 않음에 따라 독일의 6개 평가대상 은행은 발표 초기에는 유로지역 국채보유를 밝히지 않았음.
 - 시장분석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위기상황분석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독 일의 6개 은행들은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유로지역 국채현황을 공개 하기로 결정함.
- 유럽의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투명성 논란은 개별 은행들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 한 미국과는 달리 세부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고 있음.
 - 미국은 개별 은행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공적인 위기상황분석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즉, IMF를 비롯한 시장분석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균형 잡힌 시나리오와 세부 정보의 공개로 인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시 장이 안정적인 상승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세부정보 공개는 시장과 금융정책 분석가들의 지속된 압력이 없었다면 미국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

6) Financial Times, "Stress test results 'underwhelming'," 2010.7.26

다. 유럽은행의 자본보강 계획

- 유럽은행감독위원회 또는 유럽 각국 은행감독당국이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자본확충 계획을 동시에 공표하지 않음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에게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미국은 7,00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이 운영되는 시점에 위기상황분석을 발표함으로써 부실은행들에 대한 자본확충과 관련한 시장의 우려가 크지 않았음.
 - 반면 유럽은행감독위원회는 자본확충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기 단계에 공표하지 않음에 따라 자본확충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함.
 - 이는 위기상황분석을 통과하지 못한 은행들에 대한 지원계획은 해당 국가에서 마련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인함.
 - 그러나 자본확충 계획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향후 유럽 각국의 감독당국, 해당 은행 등의 자본확충 계획이 발표되면 해소되어질 것으로 예상됨.
 - 스페인은 이미 자체적인 위기상황분석으로 45개의 비상장 저축은행들이 부동산시장의 붕괴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합병 또는 자본보강 계획과 함께 자본조달 문제 해소를 위해 120억 유로의 은행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라. 자본시장의 평가

- 한편,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채권 및 주식시장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자본시장은 위기상황분석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임.
 - 위기상황분석 공개 이후 주식가격은 상승하였으며 특히,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던 채권시장은 급격한 회복세를 보임.
 - 독일과 주변 국가(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격차는 급격히 축소됨.
 - 스페인과 그리스는 각각 10년 만기 국채와 단기 국채를 성공적으로 매각하였고, 포르투갈의 국채 옥션의 금리가 상향되는 등 주변 국가의 국채시장의 고무적인 회복세가 나타남.

4. 시사점

- 감독당국은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분석의 엄격성과 관련하여 시장참여자의 니즈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럽감독당국은 일부 남유럽 국가의 국채손실평가율에 국가부도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나, 시장참여자는 일부 남유럽 국가의 국가부도를 우려하는 견해를 지니고 있음.
 - 유럽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 간의 이 같은 견해 차이는 위기상황분석의 엄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유럽의 경험은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향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장참여자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분석의 엄격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감독당국은 분석방법, 분석결과, 자본확충 계획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여 시장 불안의 지속 또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시장충격의 최소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럽은행감독위원회는 최근 위기상황분석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시장참여자가 기대한 시점 및 내용보다 미흡하였음.
 -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처음 예정한 시기보다 늦게 공표되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처음 계획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으나 개별 회사의 분석 결과는 공표되지 않음.
 - 이는 유럽금융시장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또 다른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미국도 2009년에 유사하게 발표 시기 및 내용을 조절하였음.
 - 우리나라 감독당국 역시 유럽 및 미국처럼 시장충격의 완화를 위해서는 향후 위기상황분석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 발표 시기 및 내용과 관련하여 감독측면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의 집중과 거시경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유럽 등이 경험한 금융시스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기상황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리스크의 집중과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09년 말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시스템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상황이나 위기상황분석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행, 대응방안 수립, 분석결과에 현실 반영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타 위기상황분석과의 비교, 위기 극복에 대한 확산 전달, 자본조달 계획 등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보임. KiRi